

■ 화제의 뉴스 ■

LH, 공공임대·소형 남기고 주택분양 철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분양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합니다.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는 영역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이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LH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주력으로 삼고, 주택분양 사업에서는 사실상 철수하되 공공 기능이 아직 필요한 소형주택만을 남길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역점사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에서는 LH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각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 조정이 이뤄집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LH는 민간과 겹치는 영역인 주택분양 사업을 사실상 접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택분양은 민간 건설사들이 주도해야 하는 시장이지만, 공공기관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LH는 85㎡ 이하 주택사업에서 민간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고려해 LH가 수행하고 있는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LH 주택분양 사업 중단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작업은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민간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기업 기능을 매각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민간 경쟁의 타당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 점검해 모든 기관(공공기관 미지정 자회사까지 포함)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문화 분야 기능 조정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SOC 분야 기능 조정 대상으로 꼽힙니다. 도로공사는 직접적인 도로 건설 사업에서는 손을 떼고 도로 운영·유지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부채 문제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이나 도로공사 소유 용지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매각하는 방안

도 검토됩니다. 이는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는 데다 복지 재원이 늘어나 SOC를 줄여야 할 재정적 이유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해 손익공유형 투자 방식(BOA·Build-Operate-Adjust)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교도소와 세무서, 우체국도 민자를 도입해 짓기로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로공사가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인 민자 고속도로 유지관리 사업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를 설립하며 핵심 분야 이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선 한전은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68개 출자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과감히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철도공사 자회사들도 매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철도공사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이유로 자회사를 통해 펼치는 사업들이 이미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한 사업이라 공기업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레일유통 온라인 쇼핑몰, 코레일로지스 국제물류, 코레일관광개발 외국여행·렌터카, 코레일네트웍스 민간 주차장 관리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자회사는 2013년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문화 분야 기능 조정과 관련해 1차 타깃은 카지노 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사인 파라다이스를 비롯해 국내 동종 민간업체들이 있는 데다 영종도에 외국 자본 리포&시저스(LOCZ)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미 설립 목적이 달성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NH, 공공임대·소형 남기고 주택분양 철수\(2015. 1. 9.\)](#)